



돼지고기 값도 연동제

— 농수산부, 양돈농가 소비자 보호 위해 —

농수산부는 4월 12일부터 돼지고기 행정 지도가격제도를 폐지,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에 연동시켜 소매가격을 자유화했다.

쇠고기가격연동제에 이어 돼지고기 행정지도가격제를 폐지한것은 지금까지 산지돼지가격과 도매시장경락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적시에 돼지고기 소매가격 변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와 소비자 어느쪽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중간 상인으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유통상의 문제



△ 정부는 소고기값에 이어 돼지고기값도 연동제를 실시하였다.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연동제실시로 돼지고기값도 쇠고기 값과 마찬가지로 서울은 축산물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지육경락가격, 지방은, 서울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과 산지의 돼지가격에 따라 그때 그때 상하로 조정되는데 도매시장가격 형성에 따라 연동되는 소매가격표는 다음과 같다.

시 장 가 격 (서울 도매시장 경락가격kg당)	연 동 가 격 (정육 소매가격 600g 당)	생 돈 가 격 (생돈90kg 두 당)
800원	840원	51.2천원
850	890	54.1
900	930	56.8
950	980	59.6
1,000	1,000	62.4
1,050	1,050	65.2
1,100	1,100	68.0
1,150	1,150	70.7
1,200	1,200	73.5
1,250	1,250	76.3
1,300	1,300	79.1

태백지구에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

— 임야35만 7백ha에 1백92억투입 —

농수산부는 산간지대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와 풍부한 임산자원을 이용, 축산진흥을 위해 개발여지가 큰 태백지구에 84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백 92억원을 투입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태백지구 축산단지조성 계획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횡성·평창등 태백지구의 임야 35만 7백 81ha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84년까지 1백 92억원을 투입, 5천 ha의 초지를 조성하고 한우 2만 5천두, 육우 4천두, 교잡우 2천두, 젖소 5천두등 총 3만 6천두의 가축을 입식, 육성키로 했다.

이 축산단지가 84년에 완성되면 한우는 현재의 4만 8천 6백 77두에서 9만 9천 50두, 육우는 2천 1백 96두에서 7천 4백 90두, 유우는 5천 8백 93두에서 2만 3천 4백 90두로 각각증가, 가축수는 현재의 5만 6천 7백 66두에서 2백 29% 증가된 13만 30두에 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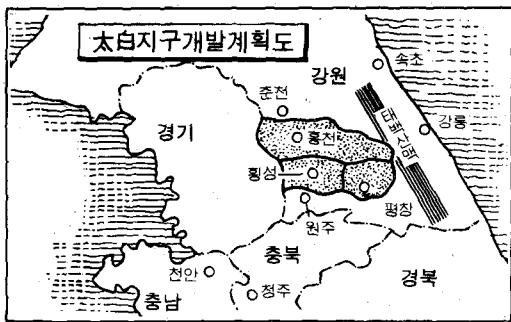
또 참여농가와 농가소득도 크게 증가, 농가호수는 현재의 2만 6천 2백 33호에서 1백 17·6% 증가한 3만 8백 50호, 호당 규모는 2두에서 4·2두로 증가, 전체농가의 90%가 유축화되고 호당 소득(축산)은 현재의 34만 5천 6백원에서 2백 28%증가한 78만 8천 9백원이 된다.

특히 사료증산을 위해 신품종옥수수 재배를 확대, 8천 9백 53ha로 늘리기로 했는데 농수산부는 1차연도인 올해에 총 21억 2천 5백만원을 투입, 토지조성등 기초사업을 펴 나가기로 했다. 80년부터 84년까지 투자계획 내용은 표와같다.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80 년 계 획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 초지조성	5,000ha	2,937	600ha	362
2. 가축입식	36,000두	8,550	3,820두	926
한 우	25,000 "	5,000	2,500두	500
육 우	4,000 "	1,200	480두	114
유 우	5,000 "	1,750	600두	210
교 잡 우	2,000 "	600	240두	72
3. 담 리 작 사료작물	5,100ha	(66)	500ha	(7)
5. 전업양축 가 육 성	200개소	12200	24개소	144
5. 기반시설 및 장소		6.447		686
합 계		19,200		2,125



△ 농수산부는 태백지구 산간지대 임산자원을 이용하여 대단위 축산단지를 5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팔호안은 지방비 부담액임

3월중 양계용배합사료 13만5천톤

— 육계사료 전월대비 99.8%증가 —

3월중 양계용배합사료 생산은 13만4천9백76톤으로 전월대비 19.9%의 증가를 나타냈다.

한국사료협회(회장:정태원)가 발표한 금

년 3월중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에 의하면 육추사료는 전월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생산되었으며, 산란계사료는 15% 증가를, 육계사료는 99.8%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금년도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단위: M/T)

구분 월별	육추사료				산란계사료				육계사료			누계	
	초생추	중추	대추	소계	초기	중기	말기	중계	소계	전기	후기		소계
1월	2,438	7,209	17,025	26,672	88,385	36	117	23,839	112,437	7,785	16,335	24,120	163,229
2월	2,535	4,241	13,999	20,775	63,469	149	140	16,674	80,432	6,077	5,329	11,406	112,613
3월	4,237	4,522	11,137	19,896	71,804	158	140	20,179	92,281	12,890	9,909	22,799	134,976
누계	9,210	15,972	42,161	67,343	233,658	343	457	60,692	285,150	26,750	31,573	58,325	410,818

표준축사설계도 배포

— 축진, 허가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 위해 —

축산진흥회는 축사표준설계도의 최종승인을 받아 곧 이를 전국 시·도·읍·면에 배포할 계획이다.

축산진흥회는 양축가들의 축사전립시 노력비용의 절약과 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과잉시설의 방지를 위해 표준계사 설계도를 작성, 그동안 협의를 해왔는데 지난 4월8일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공고 제 39호로 승인을 받았다.

이 표준축사 설계도는 4개축종 14동의 표준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형식의 축사를 건조할 경우 건설도면이 따로 필요없으며 허가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이 표준설계도를 이용함으로써 양축농가에서는 공사비·시간·설계비용등을 절감할수 있게 되며 축사를 잘못 건조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막을수 있게 된다. 축진은 이 축사설계도를 보급계획에 의거 각지방 허가청과 관련기관에 곧 배부할 예정이다.

2·4분기 축산진흥자금 방출

— 농수산부,

축산기반조성사업에 박차 —

농수산부는 2·4분기 축산진흥자금 1백 15억 8천만원을 방출한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자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가축개량사업 가축증식사업지원 이외에도 가축방역 사료안정공급 낙농진흥사업등에 쓰이는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18·5%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축산진흥자금을 중복별로 보면 가축개량사업에 3억 5천만원 가축증식사업 39억 2천만원 낙농진흥 16억 4천 3백만원 목야조성 7억 5천만원 사료공급 23억 7천만원 가축방역 2억 1백만원 축산물유통사업 24억 1천만원등 총 1백 15억 8천만원이다.

농수산부는 축산진흥을 위해 이 자금을 늦

어도 5월말까지는 모두 방출할 계획인데 특히 가축증식자금과 낙농자금 55억 6천만원은 앞당겨 지원, 한우입식 및 젖소도입사업등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농수산부는 축산물유통사업으로는 육가공공장시설 지원등을 강화하고 2억원을 들여 가축방역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지난 1·4분기 중에는 1백 29억 6천만원의 축산진흥자금을 지원했다.



축산물공급 창구일원화 애로

— 농협공판장운영권 이관놓고 —

농협축산물공판장의 운영권 이관문제를 놓고 농수산부와 감사원당국간에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축산물수급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공판장과 이의 관리업무를 축산진흥회로 이관할 방침아래 자산평가등 관계 작업이 마무

리 단계에 있으나 감사원에서 농협모법 및 그 시행규칙상 공판장 운영권의 이관은 위배된다고 지적 함으로써 농수산부의 이같은 정책 전환이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당초 축산물공급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아래 농협축산물 공판장 운영권과 1천여개에 달하는 축산물직매장관리업무를 지난 3월말까지 축산진흥회로 이관하기로 했었다.

롯데축산 가공공장 7월 준공

— 햄·소시지등

— 고급육가공품 생산예정 —

롯데축산은 충북 청주공단내 건설중인 육가공공장을 늦어도 7월안으로 완공 8월부터는 본격생산할 계획이다.
내외자 1백억원을 들여 하루 30t을 처리

가공할 수 있는 대단위육가공장 건설에 착수한 롯데축산은 서독등에서 최신형 기계를 도입설치 햄·소시지·베이콘등 고급육제품만을 생산할 계획인데 특히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 판매점에 냉장 쇼케이스를 공급하는 한편 롯데제품의 기존 판매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하는등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다.

주방기구 세미나 개최

— 오진양행, 국내 F·F산업 발전위해 —

오진양행(대표: 정진국)은 세계적인 주방기기 메이커인 Henny Penny사와 공동으로 국내 간이식산업(Fast Food)의 발전을 위한 주방기구세미나를 4월 7일(월) 오후 미국대사관 무역관에서 개최하였다.

관련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해니페니사의 국제영업담당자 에이카씨는 강연을 통해 미국의 F·F산업(간이식산업)은 어려움 속에 적자생존을 이겨낸 팽창사업으로 연간 15~2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닭고기는 세계적으로 값싼 단백질원으로 외국의 경우는 가격의 안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을 받고있어 미국의 경우는 78년 부터 닭고기소비가 돼지고기를 상회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P-H-T압력튀김기에 대한 설명과 특징이 강연과 슬라이드를 통해 참석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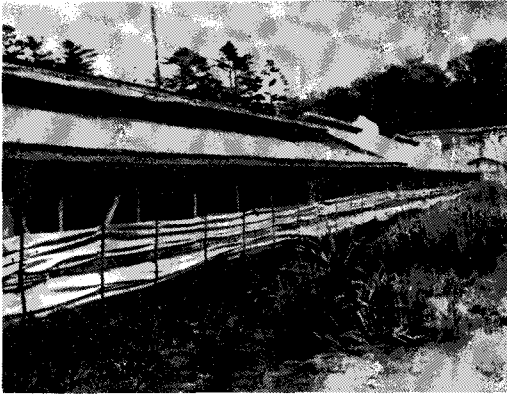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소개된 P-H-T 압력튀김기 Model-500(개스용)과 Model-600(전기용)은 튀김기내 증기압으로 고기내 수분 75%를 유지하여 느끼한 맛의 제거와, 기름값절약, 시간의 절약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되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 세미나는 100여명이 참석 간이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영세농자립에 15억 지원 — 농수산부, 올해 1천호대상 —



정부는 올해 영세농 자립시범사업계획을 확정, 1천호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경지의 영세성 등으로 저소득에 머물러 있는 농가 가운데 노동력이 충분히 있고 사업의욕이 강한 농가에 자금을 뒷

받침 해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육우등 12개 종목에 1천호를 참석시킬 계획으로 소요자금 15억 4천 5백만원을 국고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예정이다.

농수산부가 확정된 사업종목별 참여농가호수와 사업물량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별 호	수	사 업 물 량
비 육 우	699	1,545두
육 성 우	179	593 "
젓 소	1	2 "
양 돈	15	235 "
양 계	1	1,000수
개 사 육	1	50두
양 봉	5	100군
시 설 원 예	80	39,315평
해 태	16	213책
농 기 계	11	19대
인 삼	2	1,200평
약 초 재 배	2	1,800 "

축진, 우수정액생산 공급

— 후대검정필한 유우정액등 —

축산진흥회 가축개량사업소는 가축개량 사업을 위해 후대검정을 필, 조상의 능력검정을 마친 우수한 유우(연간 유생산 6,000kg 이상, 유지율 3.5%이상)등을 선발 그 정액을 낙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 정액은 축주가 정액이 필요할 때 해당 관내 인공수정소에 요청하면 보급받을 수 있으며 가축 인공시술료는 최초로 실시할 때만

시술료를 내고, 추가 2회 수정까지는 정액대만 물게 된다.

시술료 및 정액대는 다음과 같다.

축	종	시 술 료	정액대(한앰플)
한	우	3,500원	500원
육	우	3,500	500
유	우(등록우)	5,000	600
유우	(후대검정필)	6,000	1,000
돼	지	3,500	500

한국냉장, 육제품판촉 강화

— 직판제로 개선, 대리점운영 —

한국냉장은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판매대행체제를 없애고 대리점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냉은 지금까지 한냉식품(주)에 판매대행권을 부여, 위탁판매형태로 운영해오던 것을 7월부터는 직판체제로 탈바꿈하여 주요지역

에 대리점을 두고 판촉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동사는 한냉식품과의 판매대행계약을 6월 말로 끝내고 대신 서울강북지역에 한해 판매권을 허용, 대리점으로 바꾸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모집하기로 했다.

한국냉장은 제2육가공공장을 년내에 건설하는 등 지금까지의 냉장보관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인 육가공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료곡물 유통관리 세미나 개최

— 국내 물적유통합리화를 위해 —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지부장:박영인)는 미국 캔사스주립대학의 정도섭박사를 초빙 국내 사료곡물 유통합리화를 위해 사료곡물 유통관리세미나를 지난 4월 24일 오전 미국농업무역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사료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사료곡물을 비롯한 각종 원료의 취급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설투자 및 물적유통합리화를 위해 곡물의 수입, 하역, 수송, 보관, 품질관리에 대한 일반이론과 국내의 문제점을 토의하였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 미국의 사료곡물유통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편 정도섭박사는 대형화되는 국내 사료곡물 도입을 위하여 인천·부산항 외에 목포·군산항의 항구의 다변화의 필요와 아울러 하역시설과 곡물저장 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을 밝히고, 사료곡물도입시 12개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절차과정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국내 유통개선을 위하여는 농수산부, 사료협회, 농협, 축산진흥회, 경제기획원 등이 합심하여 곡물저장, 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천명했다.



△ 대형화되는 국내 사료곡물 도입을 위해 항구의 다변화를 역설하는 정도섭 박사

유통산업근대화 5개년계획마련

— 84년까지, 정부재정 2천억투자 —

정부는 유통산업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84년까지 5개년동안 8천5백 69억원을 투자,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유통산업근대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책의 기본방향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이러한 근대화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유통관련시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간중 주요사업은 △ 농산물유통부문에 2천9백 68억원 △ 수산물유통부문에 2백 26억원 △ 공산품유통부문에 2천 52억원 △ 물적유통부문에 1천4백 72억원 △ 도매시장과 수송·하역·보관·유통정보기능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도키 위한 대규모 유통단지조성에 1천5백 92억원등 모두 8천5백 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원키위해 5개년 동안재정투융자 2천억원을 지원하고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을 비롯 화물터미널 유통단

지조성 유통구조의 체인화사업등에 1억5천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도로 상하수도등 간접시설의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도매기능의 정비 및 전문화를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농수협공판장 20개등 35개소를 마련하고, 소매기능의 대형화 및 기업화를 위해 종합식품연쇄점 2백 개 전문점 40개 슈퍼체인육성 1백 15개등 모두 3백 55개 점포를 세울방침이다.

이 계획은 또 중소상인연쇄점 1백 30개, 농협계통출하사업을 60개출하반으로 확대하고 가공 및 규격화 포장확대를 위해 가공시설 1백 24개확대 포장 및 저장용기 1백 3만개를 개선하며 유통단지 12개소조정, 화물터미널 42개건설, 보관저장창고 3백 51개건설, 철도화물기지 3개소마련 등으로 되어 있다.

냉장쇼케이스공급지원

— 농수산부, 서울닭고기 판매업자에 —

농수산부는 닭고기 유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서울시내 9백 70여곳에 달하는 생계판매업소에 냉장 쇼케이스를 공급, 도계행위를 금지하고 허가받은 도계장에서 잡은 닭고기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공해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서울시내 생계업자들에게 닭을 잡는 행위를 규제, 4월부터 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만을 판매하도록 조치한바있는데 생계업자들은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 생업을 위협당하고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으로 약30만원으로 추정되는 냉장쇼케이스를 50% 보조 50%용자조건으로 이들에게공급하고식육판매업허가를 내주어 위생적인 닭고기를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축산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개최

— 5월3일 전북대학교에서 —

한국축산학회(회장: 이재근)는 춘계 학술 발표회 및 임시총회를 5월3일(토) 오전 9시부터 전북대학교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등록 및 접수를 시작으로 이사회와 각분과별특강과 임시총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학술발표회와 총장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다.



(이재근)

낙농권지방분산으로 원가절감해야

— 농협, 낙농발전 당면과제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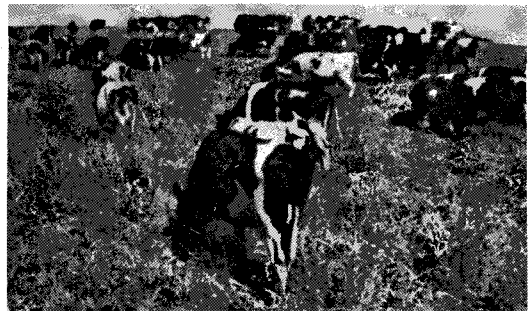
한국의 낙농업이 육성발전되기 위해서는 낙농생산업이 제고되고 낙농권의 지방분산과 조사료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원유유통개선·우유소비저변확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분석한 우리나라 낙농업의 당면과제를 보면 1일 우유산유능력이 15kg이하인 착유우가 전체 보유우의 37.8%이며 두당 산유량이 4천5백~6백kg으로 일본의 4천9백~5천 kg보다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불량우의 도태·품종개량등을 통해 두당산유량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근교를 중심한 낙농권이 전체의 60%를 형성, 조사료 생산기반을 갖추지 않은채 농후사료 의존율이 높은 관계로 유가 상승등이 유발되므로 초지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낙농권이 조성돼 사료자급율을 높여야한다는 것.

원유유통개선을 위해 산패·항생제검사·유지방함량의 측정등 원유검사를 집유소에서 낙농가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지방함량차에 따른 농가불이익을 시정하고 차량운행의 불합리에 따른 산패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농가손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국민 1인당우유소비량은 8.78kg으로 일본의 12.7%에 불과하고 인도에 비해서도 20.4%로 훨씬 뒤떨어지고 있으므로 낙농권재편·사료급여효율화 등 경영합리화에 따른 생산비절감으로 저렴한 우유를 생산공급하여 시유등 음용유를 중심으로한 소비저변 확대를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마련

— 농수협조합 추가 —

정부는 농수협조합 및 어촌계가 하고있는 공동출하사업등을 유통산업근대화 대상사업 외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시행령을 마련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유통산업근대화 대상사업외로 추가된 사업은 농수협조합 및 어촌계가 시행하는 공동출하사업 산지소비기간 유통정보체계화에 관한 사업 그리고 유통산업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근대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소비자협동조합의 활동에 관련된

사업등으로 되어 있다.

이 시행령은 또 각부처에서 유통근대화 기본계획에따라 년차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했으며 유통단지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상공회의소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자가 할수 있도록했고 유통단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하는자는 유통단지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사업성을 검토 받도록 했다.

이밖에 유통근대화시책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경제부처장관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15인이내의 유통근대화추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우유소비위축장기화

—성수기에도 매기회복안돼—

농수산부는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우유 소비가 늘지않고 계속 둔화현상을 나타내 전지분유등 체화량이 계속 늘어나자 유가공업계로 하여금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도록하는 한편 문교당국과 시교육위등에

우유의 학교급식확대를 요청했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작년 여름성수기의 대장균 파동으로 우유소비가 줄어들었고 불황으로인해 지난겨울에는 급격한 소비둔화현상을 나타내 작년말현재 전지 및 탈지분유재고가 3천여t에 달했던 것이 원유증가에 반해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소비는 늘지않아 최근 분유 체화량이 6천t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유소비 둔화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유가공업계가 심각한 자금만에 빠짐으로써 원유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발생, 낙농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업체는 낙농업의 안정화와 유가공업의 발전육성을 위해서는 우유마시기 캠페인이나 학교급식용도 중요하지만 유제품 가격안정에 의한 소비증가요동등 근본적인 장기 낙농업지원육성책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양계 특별 초청 세미나 개최 —현대양계경영과 가금영양에 관해—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오세정) 와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 강면희)가 주최하고 한일농원 한일사료(주)(대표: 차두홍)가 후원한 Robert Sparboe 씨와 M.L. Scott 박사 초청 특별 세미나가 4월 12일(토)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200여명의 업계 학계, 관련인사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Robert Sparboe 씨는 현대양계경영의 특징을 발표하는 가운데 생산비관리와 효율적인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사업의 성패는 고객유치와 제숙거래를 위해 효과적인 판매기술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이 특별히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코넬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세계

적인 영양학자 M.L. Scott 박사는 가금영양의 최근연구동향에 관해 발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본지에 요약 게재 하였다.

이날 통역은 이유방박사(KIST)와 한인규 교수(서울농대)가 수고를 했다.



메탄가스시설 개발에 성공

— 농업기술연구소,

연암축산대학에 시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는 연중 생산이 가능한 대형 메탄가스 시설개발에 성공했다.

농촌 열자원 연구담당관 박영대박사 연구팀이 충남 천원군소재 연암축산전문대학 실습농장에 대형 메탄가스시설(발효조용량 1백 입방m)을 설치해 겨울철에 하루평균 1백50 입방m의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에 성공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시설규모는 5인가족 기준으로 겨울철

에 취사만 할 경우 1백 50호, 취사및 난방을 겸할경우 25호가 사용 할 수 있는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다.

◎농수산부인사

정부는 30일 농수산부 식산차관보에 김주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에는 정병교 대변인을 관리관으로 승진전보하고 대변인에는 김병권 총무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대규모도축·냉동공장건설추진

— 추진, 시설기재차관도입키로 —

축산진흥회(회장:함만준)는 내외자 1백억원을 들여 대규모 도축시설 및 냉동냉장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축산진흥회는 당초 강남구 가락동에 지을 예정인 농산물유통센터 안에 도축 시설 및 공판장을 금년하반기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지역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공해문제가 대두되어 도축장 건설 계획을 변경, 서울시 당국과 협의하여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은 당초, 도축시설 및 냉동 냉장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축산진흥기금등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쇠고기 수입 중단으로 구판매수익금이 줄어들음에 따라 약 1천만달러 규모의 시설기계를 차관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덴마크 또는 네덜란드에 상업베이스 차관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돼지고기값평균 10%인하

— 대전일원 600g에 1천원 —

충청남도는 돼지고기 판매가격을 평균 10% 인하였다.

돼지고기 가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인하조치로 대전지역은(대전, 유성, 신탄진 회덕) 비계제거한 고기는 6백g 당 종전 1천 1백원에서 1천원으로, 비계미제거 고기는 종전 9백원에서 8백원으로 각 1백원씩 인하였다.

대전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비계 미제거 고기 6백g 당 종전 8백원에서 7백원으로 1백원이내렸다.

충청남도는 돼지고기값 인하조치와 함께 정육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최고 5백만원까지의 벌금형과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초지조성자금 25억지원

— 10ha 미만보조 50, 용자 50% —

농수산부는 보조 6억 2천 5백만원, 용자 18억 7천 5백만원등 25억원을 지원, 년내 4천ha의 초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축산진흥을 위한 초지 개발 장기계획에 따라 올해 4천ha 조성목표로 ha 당 조성비 62만 5천원가운데 10ha 이하의 면적은 50%국고보조, 50%용자 그리고 10ha 이상의 면적은 1백%용자지원하기로 결정하고 5월말까지 초지조성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작년말 현재 조성된 전국의 초지면적은 4만 5천여ha에 이르고 있는데 년차적으로 개발, 오는 91년까지는 9만 9천ha의 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취약「라쿠민파라핀」개발

—농업기술연구소,

미끼필요없이효과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는 집안퀴뿐만 아니라 농경지, 산림, 하수구등에 쉽게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취약「라쿠민파라핀」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취약「라쿠민파라핀」은 취약을 놓을때 미끼집이 필요없으며 사용이 간편

한데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라쿠민」곡류제품은 싸라기를 주재료로한 만성 취약으로 습기가 많은 곳은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갖고 있다.

또 이 취약은 쥐가 약을 먹은후 6일만에 모두 죽게되며 만든지 11개월된 제품도 제조직 후의것과 똑같이 치사율 1백%의 높은 효과를 갖고 있다.

원유수매자금 37억용자

— 농수산부, 5월방출 8월말상환조건—

농수산부는 우유소비 둔화로 재고가 쌓임으로써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가공업체에 원유수매자금 37억원을 방출하기로 확정했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시유, 가공유등 소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 봄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매기가 회복되지 않아 유가공업체들이 남아돌아가는 원유를 전지분유 또는 가당연유로 가공하여 쌓아둠으로써 자금압박이 심해 낙농가들에게 원유대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에따라 축산진흥기금에서 37억원을 원유수매자금으로 할당, 원유수매 실적을 기준하여 업체별 자금을 배정 5월부터 용자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년리 18.5%, 상환기간 8월말로써 4개월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주거지역 양축시설 이전조치

— 서울시, 악취등 주민피해 커 —

서울시는 도봉구상계동을 비롯한 번두리지역의 양계·양돈시설을 점차로 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번두리지역 34개동에 대해 지금까지는 양축을 허용해왔으나 이들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로 바뀌면서부터 악취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주택지역으로부터 이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이전대상양축농가는 모두 4백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동의 경우 주택지에 양계·양돈 농가가 양축을 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 여러차례 이전토록 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바 있는데 서울시는 이들 양축농가가 주택지로 되기이전부터 양축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 이전조치를 하지않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이후 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전계획을 서둘러왔다.

한우개량 기술강습 실시

— 축진, 가축무료진료도 —

축산진흥회 (회장 : 함만준)는 한우개량을 위한 기술강습과 가축무료진료사업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축산농가로 하여금 한우개량사업에 적극참여 하도록하고 사양관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 기술강습은 전국 8개도 (제주도제외)의 한우개량사업 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사양관리, 질병예방치료, 자급사료생산 이용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아울러 번식장애우의 색출, 처치 및

기초진료에 중점을 둔 무료진료사업이 실시됐다.



△ 축진은 한우개량을 위해 기술강습과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였다

콩기름판매경쟁 가열예상

— 축산업신장에 많은 기대걸어 —

지난해 콩기름매출고 3백 65억을원 기록한바 있는 선발메이커 동방유량은 그동안 시설을 대폭확충, 하루 1천 2백25t의 대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판로확장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하루 2백t 처리능력을 갖추고 작년 9월부터 본격적가동하기 시작한 제일제당도 4개월 동안 4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림으로써 올해는 1백50억원대를 겨냥 기존업체의 시장 잠식은 물론 새로운 수요창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비해 오는 6월 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2백t 처리규모의 삼양은 라면·간장등 판매조직망 활용에 중점을 두고 콩기름시장흡수전략에 부심하고 있어 치열한 삼파전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진식품을 인수한바 있는 동명그룹의 동명식품도 하루 2백t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매출실적이 45억원에 그쳤으며 롯데삼강은 콩기름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형편인데 양축업의 경기애 더 큰 비중을 두고있는 이들 대두처리업체로서는 콩기름의 수요증가도 문제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불황에 휘말려온 축산업의 신장여하에 기업전망이 달려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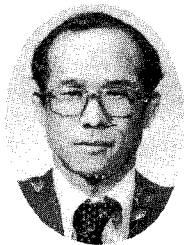
그런데 올해 대두수입계획량은 35만t(기타공업용 제외)으로써 콩기름수율을 17%로 잡을 경우 6만 1천 5백t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황의 여파로 올해 콩기름 수요가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알려져 삼양식품이 콩기름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출혈을 무릎쓴 덩핑 판매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관련 업체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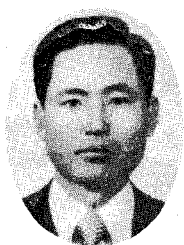
○신정재 (SF 과학사료공사 사장 본지 편집위원) ...우리나라 CRD 치료약품 개발의 선구자인 신정재 사장은 5월 5일 동남아 일대의 양계업체와 동물약품제조공장 시찰차 출국한다.

이번에는 특히 이지역의 CRD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귀국할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또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에란코사의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가금 및 양돈 워샵에도 참석한다.



(신정재)



(최재준)

○최재준 (엘라이틸리 한국지사, 수의사) : 에란코 회사의 범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의 가금 및 양돈 워샵에 참석키 위해 5월 4일 필리핀으로 출국. 이번워샵은 10일동안 마닐라에서 에란코회사의 최신정보기술교환 및 사원교육을 위해 실시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 최죽송) : 오랫동안 숙원이던 2층 30평 부력건물의 협회 회관을 건립 지난 4월 30일 이전, 새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21-2 (한국동물약품협회 회관).



(최죽송)



(조성용)

○월간 종합축산 (발행인 : 조성용) : 1980년 5월호부터 발행인겸 편집인변경으로 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4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02호) ☎ (795) 1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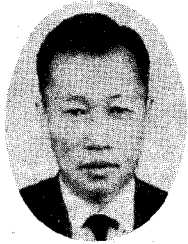
발행인겸 편집인 : 조성용 <주>대성미생물 연구소 대표

○김창수 (<주>우성양행대표) : 동물약품제조 및 지대가공업을 취급하는 <주>우성양행 대표로 취임 ☎ (대전) 2-7836.

주소 : 대전시 동구 효동122-1

○뉴질랜드 초지 및 낙농업계시찰 : 농수산부 축산국 송찬원낙농과장과 강원도 축정과 이영훈과장, 제주도 축산계장 김공식, 축진 진흥부 유남열부장, 매일유업의 박신희박사 등은 뉴질랜드의 초지 및 선진지 축산업계 전학을 위해 4월 20일 출국, 5월초 귀국예정.

○同心會(회장: 김원복): 4월 정기 모임을 25일 오후 1시 중묘에서 개최.



(김원복)



(김무진)

○중앙약품공업사(대표: 김무진): 사세확장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81 대한 어머니회관 201호로 사무실 이전 ☎ (676) 7621~3.

○한국냉장(주)(대표: 김영하): 내외자 50여억을 투입하여 경기도 안성에 제2 육가공 공장 건설계획, 금년 11월 착공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하루 20톤의 햄, 소세지, 베이컨 등 순육제품만을 생산할 예정이다.

○오재정(홍성사료상무), 강관용(NRA 한국지부장): 미국 우지업계 시찰차 2주간 예정으로 지난 4월 22일 출국.



(오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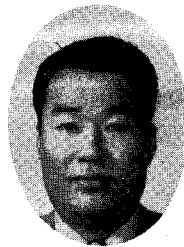


(강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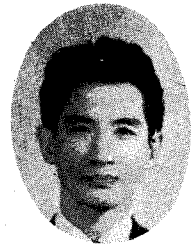
○서주산업(주): 서주우유를 생산하는 동사는 빙과류제조업 진출을 위해 전북 김제에 아이스크림공장을 건설 6월부터 출하예정.

○헌법및 농림법령공청회: 공업화 획일화하에 파괴된 농촌, 빗나간 농업체제를 바로잡아 1천 5백만 농민의 뜻을 헌법에 반영시키고, 80년대 농정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전국농업기술자 협회(총재: 류달영)등 농민단체 공동주최의 헌법및 농림법령 공청회가 지난 4월 17일(목)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

○미국축산물가공업계시찰: 미국 사료곡물 협회한국지부 박영인지부장, 농수산부 가공 이용과 김기준, 건대 윤효직 교수등은 미국 축산물 가공업체시찰차 5월10일 출국예정



(박영인)



(김현배)

○서울양계기구(대표: 김현배): 국내 사양농가의 포장비, 인력 및 사료손실 절감과 좁은장소의 창고대용은 물론 기계화로. 제경비 절감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FEED BIN 국산화에 성공하여 시판개시
연락처 ☎ 372~8302.

○한국계우회(회장: 김종현): 동대문구 청량리동 761번지 (제일빌딩 311호)로 사무실 이전 ☎ (966) 0310

○돈육수매재개 : 농수산부는 최근 계속내림세를 보이고있는 돼지값을 지지하기 위해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지난 4월 7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등 3개도시 지정도축장을 통해 돈육 수매를 재개.

○윤효직(본회감사, 건대교수) : 전국대학교 축산 대학장으로 취임.

○이용빈(서울농대 축산과교수)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에서 35년간 후배양성과 학술연구에 진력하시다 지난 2월말 정년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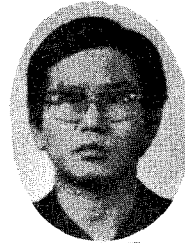
(이용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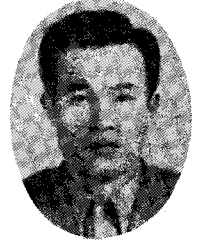
(황영구)

○김권철(농수산부 축산과장), 황영구(한국중축개량협회장) : 캐나다 정부초청으로 캐나다 스타포드에서 개최되는 홀스타인 국제전람회 참관과 오타와주 Edmonton 지역 낙농가, 유가공업체, 축산관계기관 시찰차 지난 4월 29일 출국, 또 미국 홀스타인 등록협회와 유우등급 심사위원 훈련 및 낙농실습생 파견문제를 협의하고 5월 20일경 귀국예정.

○박준영(한협가금농장 대표, 본회이사) : 미국, 영국, 구라파등 20여개국의 양계산업 시찰을 위해 5월초 출국예정.



(박준영)



(오경록)

○오경록(천호부화장 질병연구실장) 5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2주간 호주 양계산업시찰과 시드니와 멜본의 SPF 빌딩 건축기술 협의를 위해 출국예정.

○두남렉스농장(대표 : 전남렬) : 전화번호 변경

☎(수원) 5-1113(주간), 5-7339(야간).

○<주>대성미생물 연구소(대표 : 조성용) : 제품의 품질개선과 영업활동강화를 위해 공장장에 최양웅이사를, 김성일 영업부장을 영입이사로 승진발령하고, 구매계장에 정규영, 학술담당주임에 정태봉, 개발실장에 김현수, 영업담당주임에 황성연, 이원준, 이승준씨를 승진발령하고 기획부에 최명희(수도사대출, 진동아 출판사근무)씨를 신규채용.

○이글케미칼공업사(대표 : 강승조) : 기획부 기획과장에 박홍기(전 내외축산사)씨를 기용.

○<주>삼창사료(대표 : 백준기) : 생산부에 김종욱(전대 축산과 졸)씨를 특채.

○서주우유<주> : 아이스크림업계 진출을 위해 우유사업담당상무에 방수진(전 동사 영업이사)씨를 승진발령하고, 아이스크림 사업담당상무에 조병제이사(전 대일유업)를 기용